

# “보시행 민족꿈·세계꿈 해결”

## 부처님오신날에 듣는 '북동포 돕기'

IMF시대.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효림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법륜스님(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통해 불자들이 왜 북한동포돕기에 나서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각 단체의 현황과 사업방향을 들어본다.

불교계에 있어 북한문제는 86년 평북협 회장 법타스님의 방북을 계기로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95년 대홍수 이후 북한주민 3백만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자 불교계에 '북동포돕기'가 이슈화되면서 본격화됐다. 불교운동본부 발족은 그 단초가 됐다. 이어 97년 5월 6일 창립된 불추위가 평북협, 불교운동본부와 더불어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제 단체들이 선의(善意)의 경쟁 속에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동포돕기 불교단일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평북협은 남북불교교류의 선봉장으로, 불교추진위원회는 북한 식량지원과 통일정책수립 등 통일시대준비기구로, 또 불교운동본부는 식량지원 및 북동포돕기를 위한 국내외 여론 환기작업에 주력하는 등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단체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꼭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고 남북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따뜻한 동포애적인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 "북한동포돕기는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이외에도 이산가족 1세대로 추정되는 2백만명 중 생존자 40여만명의 애별리고(愛別離苦)와 평화통일을 이뤄 제3의 세계전쟁을 막는 등 생노병사를 포함한 8고(苦)는 물론 민족고(苦)와 세계고(苦)를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또 "너도 나도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낼 때 진정한 참보시정신이 아니겠느냐"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평북협은 북한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오는 5월말부터 매일 20톤의 밀가루를 중국업체를 통해 금강국수공장에 제공, 북한 재해지역 탁아소와 인민학교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02-735-0559)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협: 053-01-237065  
(예금주: 금강국수)

어린이와 임산부, 조선불교도연맹 회원 등 2천2백명에게 매일 국수를 배급한다.

법타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7일 금강국수공장추진회 발대식을 가졌다"며 "그 일환으로 은혜사를 비롯한 평북협 회원 스님 사찰에서 '불'



◇법타스님

**■ 조국평화통일불교협**  
매일 밀가루 20톤  
금강국수공장에 제공  
'한등 더 켜기' 전개

한등 더 켜기운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북협은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 제2, 제3의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오는 5월6일 로 1주년을 맞는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효림스님은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95년 당시 북한에 단일교단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4월말 10여인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 교파의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한 뜻으로 북한식량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불교계의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

● 민족화합불교추진위(02-733-2557)  
국민은행: 023-01-0545-234  
우체국: 010579-0061322  
(예금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식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금활동을 통한 북한동포돕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및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정책 수립 등 장기적인 통일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 직할 기구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불교계 통일기구로 대표성을 띄게 됐다. 이와 관련해 효림스님은 "불교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주력해 왔던 북한 직접지원사업 외에도 종자와 비료, 농약 등의 지원을 통한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 불교정책 워크샵, 불교지도자 통일포럼의 개최, 통일정책실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 등 '준비된 남북통일기구'로서 사업방향을 확대해 불



◇효림스님

**■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종자·비료·농약 지원  
북 농업 생산성 향상  
통일준비워크숍 정례화

교계에 점진적으로 민족화합을 위한 통일 무드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97년 9월부터 3억6천만원을 북한에 전달한 불교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적십자사에 1억원을 전달하고 5월 2일 인천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하는 배편으로 우리나라 밀가루를 조선불교도연맹에 기탁한다. 그 밖에도 불추위는 22일 통일준비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일 불교정책워크숍을 정례화하고 각 종단, 단체, 사찰 유관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대외협력력을 강화하는 등 한민족공동체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농협: 044-02-086765  
(예금주: 최희호)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불교운동

본부는 96년 12월15일 서울역에서 거리모금을 시작한 이래 거리캠페인과 밤한공기 나누기운동, 한끼줍기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현재 그 모금액이 10억원(9억 8천6백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불교운동본부는 또 국내 노동단체, 학생단체, 기업, 사찰은 물론 UN과 세계 인권단체를 방문, 강연회와 보고회를 갖는 등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동포애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아끼고 있다.

북한동포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세계무대를 분주하게 뛰고 있는 법륜스님은 "〈백유경〉에는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이는 무엇보다 독화살을 뽑아 상처를 치료해야 하며, 그 독화살을



◇법륜스님

**■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한끼줍기 등 10억 조성  
북에 옥수수·분유 지원  
북동포 동포애 확산

맞은 이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독화살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유가 있다"면서 "기아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무엇보다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죽어 죽어가는 동포를 살려내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가장 경제적인 일이고, 가장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미국 제이티에스(JTS)와 손잡고 매주 나진·선봉의 탁아소와 유치원 1백4개소의 유아 및 어린이 1만 1천여명에게 한 명당 옥수수 2kg과 분유 3kg을 지원하고 있다. 법륜스님은 "북한어린이 후원결연사업은 사회적으로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모금액이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 봉축시론

### 부처님 오시기 좋은 날

서울 광화문거리. 어느 카페 오후 2시쯤의 풍경이다. 샐러드맨으로 보이는 40대 남자 4명이 왈자지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시간대와 어울리지 않게 맥주를 주문하고 잔이 빠른 속도로 몇순배 돌아갔다. "무슨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 것일까"

#### 부처님의 첫 깨달음 선언 생로병사 괴로움 직시

그때까지의 분위기와 농익인 대화로 미루어 누구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반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한사람이 테이블을 치며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다. "왜 하필 나만 말아야?"

또 한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당황한 듯한 나머지 동료 두명이 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자초지종의 설명이 없더라도 왜 두명의 다 큰 남자가 대낮 카페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을까를 짐작 못할 이는 없으리라.

요즘 유행인 정리하고 대상에서 괴할 수 없었던 그들이 카페에 들어설 때까지 만해도 짐짓 대범함을 보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맥주의 알콜이 그들의 인내심을 그날 풀리었다. 그래도 이들은 한바탕 엉엉 울었으니 잠시나마 속이 편해졌을런지 모른다.

"아빠, 낯동안에는 집에서 전화받지 마세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의 철없는 한마디에 울지 못하고 속으로 아파하고 있을 아버지가 더 앓을 것이다. 속으로 앓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또 어떠할까.

분명 이 시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괴로움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행복이나 즐거움에 비해 괴로움의 고통은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요즘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괴로움을 전제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부처님 첫 깨달음의 선언도 그 괴로움에 대한 직시(直視)에서 나왔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사고(四苦)가 보다 근원적인 괴로움의 요소이었으나 중생들이 삶에 부

대하며 겪는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불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의 괴로움 또한 하찮은 것일 리 없다. 괴로움과 고통의 감각이란 전혀 개인적 체험이며 자기만의 것이어서 남이 대신 아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정에 나누는 '고통을 나누자'는 표어들이 정치적 용어처럼 공허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인 인연생기(因緣生起)의 법은 "고통은 모두에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연기의 법은 따뜻하기보다 냉담하다. 개인의 불행이나 즐거움 괴로움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며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내탓'이다. 그러함에도 연기의 법은 또한 모든 존재가 오직 저 하나만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중(重重)의 구조로 짜여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아프면 남에게도 아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연기의 법은 석가세존의 탄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처님의 탄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며 수억겁에 쌓여진 정진과 선행으로 이루어졌다. 〈자타카〉는 그 엄청난 부처님탄생 인연을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은 억겁속에 반복되는 수많은 생을 통해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상인, 수행자 황금달을 가진 세 토끼 왕승이로도 태어나 보살행을 끝없이 결쳐보였다.



김정자 (연문인)

#### 인간의 고통 他力 아닌 스스로 끊는 길 열어야

석가모니가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탄생계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인연의 쌓임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 삼계의 괴로움을 모두 씻어 없애겠다는 약속,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타력(他力) 아닌 인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었다.

진정 이 시대는 부처님 오시기에 좋은 때다.



##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 설악산 신흥사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협: 053-01-237065  
(예금주: 금강국수)

회주 무산 오현  
주지 김도후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 월정사

국민은행: 023-01-0545-234  
우체국: 010579-0061322  
(예금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실비룡대종사  
회주인허대종사  
주지현해대종사

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 법주사

국민은행: 818-21-0197-670  
농협: 044-02-086765  
(예금주: 최희호)

주지혜광  
부주지무상  
총무운성  
교무현우  
재사회보  
사회원광  
포교원담  
호법석황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 팔공산 동화사

국민은행: 053-982-0101~2  
985-4404  
팩스: 053-985-4405

조실진제  
주지무공  
선원장진허  
총무국장성호  
교무국장각호  
재무국장오정  
사회국장선종  
포교국장지종  
호법국장법현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 불국사

국민은행: 051-746-9913

주지應然高兆  
부주지성천  
기획종근  
교무정문  
사회정견  
포교성형  
호법혜원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92-636-7044/7393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전화 : 0374-32-6661,2,4,5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 0433-43-3615  
팩스 : 0433-43-3620

▶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982-0101~2  
985-4404  
팩스 : 053-985-4405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전화 : 0561-746-9913